

[영화]

한여름 무더위 날려버릴 코믹영화들



왼쪽부터 영화 '시랑방 선수와 어머니' '미스터빈의 휴리데이' '죽어도 해피엔딩'

웃음의 바다로… 더위야 가라

무더위를 날려버릴 코믹영화가 온다.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8일 개봉)는 코믹연기의 대가 김원희와 정준호가 호흡을 맞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는 영화다. ‘가문의 영광’ 시리즈 등 코미디를 많이 제작해온 태원엔터테인먼트 작품.

사랑방 임대업만 꼬박 15년째 하고 있는 혜주의 사랑방에 서울에서 손님이 찾아 듣는다. 마지막 로맨스를 꿈꾸던 혜주는 수려한 외모에 매력까지 갖춘 손님의 출현이 반갑기만 하다. 세끼 꼬박 삶은 달걀 무한 제공과 손발래까지 자청하며 손님의 마음을 사려 하지 만 전직 ‘선수’ 출신인 손님이 사랑방에 머무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문의 영광’ 시리즈에 출연했던 임형준과 ‘잔혹한 춤꾼’ 등에서 모습을 보인 고은아가 팔 육회로 출연한다.

15일 개봉하는 ‘만남의 광장’은 삼청교육대 출신 ‘싹퉁’ 선생님이 강원도 산골 마을에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만남의 광장’ 8월 잇따라 개봉

‘미스터빈’ 원맨쇼 감상…스릴러 ‘죽어도 해피엔딩’도

강원도의 평화로운 마을 청솔리의 작은 분교에 오랜만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한다. 하지만 진짜 선생님은 미들로 오던 중 짜리를 밟아 며칠간 노숙 생활을 하게 되고 우연찮게 마을 암을 지나던 삼청교육대 출신 공연단이 선생으로 자리를 잡는다.

마을 사람들은 아는 게 없어 덧셈, 뺄셈만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우연찮게 마을 주민들의 약점을 하나씩 알아낸 공연단은 의기양양해진다.

코미디의 지존 임창정과 최근 드라마 ‘쩐의 전쟁’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진희가 주연을 맡았다. 임현식의 코믹 연기와 우정 출연한 유승민의 연기도 기대된다.

TV 시리즈들을 통해 인기를 모았던 미스터빈이 돌

아왔다.

15일 관객들을 만나는 ‘미스터빈의 휴리데이’는 우스꽝스러운 로맨틱 원맨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미스터빈’으로 더 유명한 로와 왓킨슨은 짐캐리에 버금가는 ‘표정 연기’의 달인이었다.

평범한 일상도 비범한 사고현장으로 뒤바꾸는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 미스터빈이 여름 휴가지에서 겪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렸다.

런던의 한 교회 추첨 행사에서 당첨돼 칸느 여행권과 캠코더를 부상으로 받은 미스터빈은 설레는 가슴을 앓고 칸느로 떠난다. 하지만 사고뭉치 빈은 파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 그는 과연 무사히 칸느에 도착할 수 있을까.

23일 개봉하는 ‘죽어도 해피엔딩’은 프랑스 영화 ‘형사애건 디지트는 없다’를 리메이크 한 코믹 스릴러물이다.

청순기련형 이미지로 인기를 얻은 영화 배우 예지원은 예전에 좀 놀았던(?) 과거를 숨긴 채 갖은 역경을 딛고 최고의 스타가 된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꿈에도 그리던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그녀의 집에 바람둥이 데니스, 무식한 조폭 최사장, 속물 지식인 유교수, 소심한 영화감독 박감독이 방문, 갑작스레 프러포즈를 해댄다.

문제는 네 남자가 차례 차례 죽어나간다는 사실. 과연 그녀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올드미스 디아리’에서 물 오른 연기를 보여준 예지원과 임원희·조희봉 등 각종 영화에서 탄탄한 조연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달콤, 살벌한 연인’으로 흥행 홍运转을 달렸던 싸이더스 FNH과 MBC가 다시 손을 잡고 제작한 HD 영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ju.co.kr

주목! 이 영화

‘기담’



두번째 이야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소녀를 보살피는

한국 공포영화 역대 최고 평점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

좋은 시절에 세상을 떠난 그녀를 부러워하며 죽은 영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2년 경성에 위치한 신식 병원을 배경으로 세 가지의 기이한 이야기를 엮어낸 공포물이다.

얼굴도 보지 못한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둔 의학도 정남. 이루지 못할 사랑에

마음 아파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여고생의 시체가 병원에 들어오자 정남은 가장